

에브리봇, AI 융합 기술연구소 출범

- ▶ 로봇 자율주행 관련 핵심 기술 및 다수 특허 취득
- ▶ 로봇 자율주행 기술에 IoT·AI를 접목해 스마트홈서비스 진화 목표

[2021-11-04] 국내 홈서비스 로봇 선도 기업 에브리봇(정우철, 270660)이 지난 3일 'AI 융합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출범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에브리봇은 바퀴 없는 로봇청소기의 주행을 정확하게 제어해 주행의 안정화를 도와주는 로보스핀 기술, 바퀴 없이 방향 및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세계 최초 매핑 기술, 세세한 청소 루트를 설정해 고도화된 자율주행이 가능한 라이다(LiDAR) 기술 등 로봇 자율주행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 기술 및 다수의 특허 취득으로 에브리봇은 세계 최초 바퀴 없는 물걸레 전용 로봇청소기를 개발했다. 또한 2015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70만 대 이상의 로봇청소기를 판매함으로써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 판매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AI 융합 기술연구소는 기존 기술연구소 소속인 AI·IoT 팀을 확대 개편하여 집중적으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기존 로봇의 하드웨어에 집중했던 것에 반해 이번 연구소 출범에 따라 에브리봇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로봇 개발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에브리봇 정우철 대표는 "AI와 IoT 기술에 집중할 수 있는 AI 융합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어 기쁘다"며 "연구소 설립을 통해 글로벌 스마트홈서비스 로봇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에브리봇은 지난달 27일 국내 로봇 산업의 기술 발전과 수출 기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로봇 대상 최고 수훈인 '2021 기계로봇항공산업 발전유공 포상식' 산업포장을 수상했다.